

##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승이, 김경엽(손정아), 김광호, 김누리헌, 김재인(이강우), 김정녀, 김정연A(이선분), 김춘화, 김한나, 김현구(서재희), 김희규, 박복례, 배경철(김순화), 오영순, 이영순, 이향교, 채명엽, 정양학(박은숙), 채만기(장은주), 최원지, 최정순, 허봉선, 황근옥(이경주), 무명.(총24명)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봉석, 김만형, 김원재, 김지한(유소정), 김태준(박복순), 김한나, 박부웅(최귀남), 박순자, 이상이, 이상학, 이영순, 이옥남, 이춘취, 조옥자, 채만기(장은주), 허봉선, 황응광.(총17명)

♠ **감사헌금**

이필례, 김경태, 김병율(이영숙), 김순옥, 김정환, 김현구(서재희), 박복순, 박부웅(최귀남), 박순자, 박은숙, 오현진(서정원), 유일환, 윤병호(양영옥), 윤현영, 이경자, 이경주, 이인숙, 이창규(곽정순), 이춘취, 이태일, 이향교, 정영성, 채명엽, 최승영(김수자), 허봉선, 무명1, 이은혜.(총27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례, 김민성, 김민혁, 김수현, 김정훈, 김준현, 김지훈, 김청숙, 김춘화, 민옥희, 박은숙, 박정숙, 박희영,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서재희,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영, 이설아, 이옥남, 이인숙, 정옥순, 주성탁, 최귀남, 최봉순, 황영옥, 무명1.(총39명)

♠ **월정헌금**

강봉석, 유일환, 이순철.(총3명)

##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2015년 제24주 : 열왕기하 6장 15절 - 8장 29절			
주 일	열왕기하 6장 15 - 23절		
월요일	열왕기하 6장 24절 - 7장 2절	목요일	열왕기하 8장 1 - 6절
화요일	열왕기하 7장 3 - 10절	금요일	열왕기하 8장 7 - 15절
수요일	열왕기하 7장 11 - 20절	토요일	열왕기하 8장 16 - 29절

원로장로	이태일			
시무장로	정기성 윤조훈 방석태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옥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강 도 사	김성중		
	전 도 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문수경 이승이 최유경		
찬 양 대	지 위 자	할 켈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 온 · 에 덴 : 최원지 엔 켈 : 이난수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운	
		피아노	강민주 김미희 김상훈 유광희 이주하 정해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 리 스트	김안나 박선희 고광훈		
선 교 사	파송선교사	대 국: 김정숙 수리남: 안석철 이성국 A X 국: 박동권 김명화	이집트: 김진숙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분옥	
	협력선교사	대 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홍기	대 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교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회 용정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5. 6. 7 주일 예배 설교

### 연약하나 강한 자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31-33절

설교: 이진우 목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때때로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부딪히며 삽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게 될 때, 자신이 너무 약하고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당한 고난의 한 예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당한 고난과 달라서 결코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 같이 보였으나 오히려 강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연약함 가운데서도 강하게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1. 바울은 복음 전도에 많은 굴욕을 당했으나 강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의 형벌 가운데 하나인 사상에 하나 강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로마인의 형벌인 대장을 세 번이나 맞았고 돌로 맞았으며 배가 파선을 당하는 일을 세 번이나 겪었습니다. 거기다 강도의 위협과 주리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또 떠는 위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런 모든 일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복음의 은혜를 올랐다면 그러한 굴욕적인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자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닌게아니라 그가 열쇠와 천대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하여 담대한 자였습니다. 죽음이나 위험이나 적신이 그를 약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 바울은 염려가 있었으나 강한 자였습니다.

육체적인 굴욕과 함께 모든 교회에 대한 걱정이 바울의 마음을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28절에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같이 바울이 교회 때문에 염려한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새로 신자 된 자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험사리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지도자들이 자주 일어나 교회를 타락시켰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약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토대 위에 굳게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모든 교회들을 위해 크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거나 낙담하여 연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그들이 복음으로 바로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3. 바울에게는 그를 괴롭히는 장애가 있었으나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장애물을 가리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몸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가 당했던 그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랫동안 바울을 괴롭혀 온 육체적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일을 집어치우고 싶은 유혹을 당했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도 품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수록 강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난 장애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는 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조소와 놀림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친구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충성을 다하려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 받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통을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4. 스스로 가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의 연약함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기회가 된다 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가시, 즉 스스로를 찌르는 가시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강한 것이 됩니다.

SINCE 1975

No. 41 - 24

2015. 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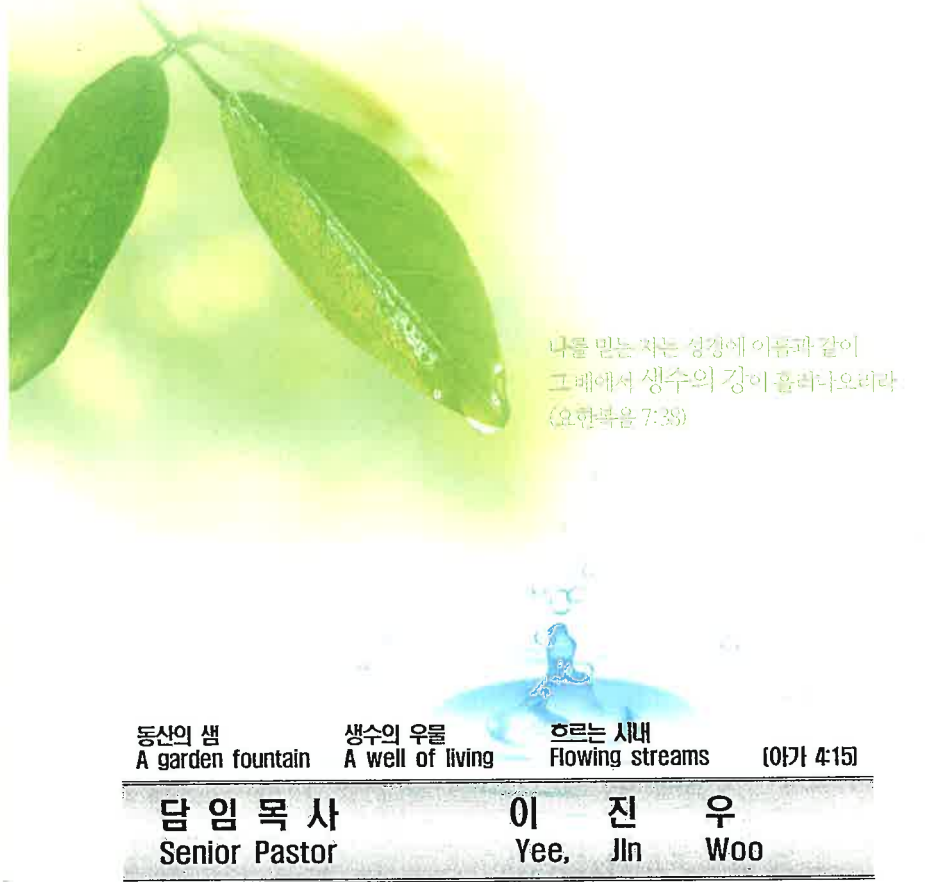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시편 80편 7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